

광주여대, 특수교육 미래 ‘마음(MAUM)’으로 품다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한국발달장애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

이선재 총장 “인간 존엄과 나눔 가치, 특수교육 정신과 맞닿아”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한국발달장애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래를 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과 특성화 특수학교 교육과정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특수교사, 연구자,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특수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선재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여대가 추구하는 ‘마음(MAUM) 교육’의 가치를 소개하며 “인간 존엄성과 나눔의 가치를 회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대학의 교육 철학은 특수교육 전

문가들이 실천하는 ‘교육에’ 및 ‘인간 존중’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 가까이 장애 학생의 교육 권 보장을 위해 힘쓴 두 학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으로서 특수교육 분야의 학문 탐구와 실천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용 도서 개발’을 주제로 국어, 수학, 과학 교과서의 개발 사례와 현장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부에서는 ‘특수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주제로 대구이룸고등학교, 국립광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대구 예아람학교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직업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 특수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설계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총 20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돼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박상희 회장(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과서 개발과 특성화 교육과정이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현장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와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특수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한국발달장애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예능영재 지원…세계적인 예술 인재로 성장”

전남도, 키움 수료식 개최

실기중심 표현력·자신감 향상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2025년 예능영재 키움 수료식을 개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예능영재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료식은 예능영재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와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예능영재 키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예술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국악, 서양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현장학습,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료생들은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실기 중심의 심화 과정과 발표 기회를 통해 예술적 표현력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됐다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예능영재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예능영재 키움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증 수여와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예능영재 키움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예술가의 꿈을 계속 키워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예능영재 키움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

역의 예술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을 넘어 세계적 예술가로 발돋움 하도록 예능영재를 지속 발굴·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전남도 예능영재 키움’은 지금까지 총 587명이 수료했다. 전국대회를 비롯해 5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한편 다수의 특례입학, 희망대학 진학 등의 결실을 봤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재정 건전성·효율성 달성…교육현장 지원 성과 인정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교육재정 운영성과 △재정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재정 운용의 체계성 강화와 필요불급한 지출구조 개선,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건비 등 주요 재정 항목에 대한

정밀한 추계 관리, 교육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행정성 경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 질은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교원 중심의 예산 집행에 집중해 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해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해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고흥군, 2년 연속 주소 행정 역량 입증 ‘국무총리 표창’ 수상

주소정보시설 정기적 전수조사·현장 중심 민원 대응 등

고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표상을 받으며, 주소정책 분야에서의 안정적 행정 역량과 지속적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주소정책 공공 협업, 홍보 활용,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조치 실적 등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기적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노후·훼손된 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현장 중심의 주소정보 민원 대응, 초등학교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등 기초 행정부터 현장 서비스까지 균형 잡힌 주소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주소 정책은 행정서비스의 기초이자 군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

뢰받는 주소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조선이공대 “지역 프랜차이즈 경쟁력 키운다”

RISE사업단,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발대식 열려

조선이공대학교 RISE사업단이 광주지역 기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조선이공대 RISE사업단은 지난 22일 대학 본부동에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영국 RISE사업단장과 송지현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학과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정형대 광주형프랜차이즈협회 회장, 문옥철 광주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팀장, 정은주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분부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지역은 외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입으로 상권이 잠식되고,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선이공대 RISE사업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중심의 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프랜차이즈의 자생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조선이공대 RISE사업단은 지난 22일 대학 본부동에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황영국 조선이공대 RISE사업단장은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광주만의 산업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광주형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산타썰매단 사랑나눔

장애인시설 270명에 2500만원 상당 희망선물 전달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공장장 장갑중)은 지난 22일 새여수새마을금고 10층 아트홀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2025 산타썰매단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장갑중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과 이승철 전무, 최홍순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가족·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산타썰매단 사랑나눔’은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이 2500만원을 후원해 장애인시설 이용자 270여명을 위한 선물 전달 행사로 마련됐으며, 후원중서 전달 및 소원 길기,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식, 겨울가치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장갑중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산타썰매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인사

광주시 동구 ◇5급 승진 의결 △기획예산실 이유영 △주

민안전담당관 김종도 △지속가능관광과 김민진 △건강정책과 박우현

한국도로교통공단 △인만홍 광주시·전남도

지부 지역본부장